

조업일 줄고 반도체 부족… 국내 車업계, 내수·수출 타격

8월 한달 총 54만4992대 판매
여름휴가에 부품 부족 등 겹쳐
지난해 동기 대비 4.93% 감소

현대차, 국내 6.5%·해외 7.8% ↓
기아, 국내 6.6% ↑, 해외 1.4% ↓



국내완성차업계가 여름휴가에 따른 조업일수 축소와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는 8월 한 달간 내수 및 수출 등 총 54만4992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93% 감소한 수치다. 기아와 르노삼성을 제외한 현대차, 한국지엠, 쌍용차는 부진한 성적표를 나타냈다.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5만1034대, 해외 24만3557대 등 전년 대비 7.6% 감소한 29만4591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6.5%, 해외 판매는 7.8% 감소했다.

국내 판매 차 가운데 세단의 경우 그랜저 3685대, 쏘나타 4686대, 아반떼 4447대 등 총 1만2840대가 팔렸다. RV는 팰리세이드 4011대, 쌍터페 3322대, 투싼 3821대, 아이오닉 5 3337대 등 총 1만6894대가 판매됐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 3718대, GV70 2575대, GV80 1231대 등 총 8307대가 팔렸다.

현대차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위기 상황 속에 대응해 각 권역별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주요 신차들의 성공적인 글로벌 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고 다짐했다.

기아는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4만 1003대, 해외 17만 6201대 등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21만 7204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국내는 6.6% 증가, 해외는 1.4% 감소한 수치다. 해외 판매는 반도체 수급 차질에 따른 차량 공급 부족 영향을 받았다.

차종별 실적은 스포티지가 3만 2388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 됐으며 셀토스가 2만 561대, 리오(프라이드)가 1만 7769대로 뒤를 이었다.

쌍용차는 지난달 내수 4861대, 수출 2874대 등 총 7735대를 판매했다. 내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8.4% 감소했지만 수출은 132.7% 증가세를 나타냈다. 제품 개선모델의 판매호조에도 불구하고 여름휴가에 따른 조업일수 축소와 부품수급 제약 상황으로 인해 전년 동월대비 3.6% 감소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쌍용차는 국내외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의 적체 해소를 위해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

으나, 반도체 등 부품 수급 제약으로 인해 출고 지연을 겪고 있다.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은 지난 4월 출시 이후 현재 까지 1만1000여 대가 판매되는 등 호조세가 이어지며 국내에서만 아직도 4000대 수준의 미출고 물량이 남은 상태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내수 4607대, 수출 4242대 등 총 8846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한 수치다. 내수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4.6% 감소했으나 수출은 189.4% 증가했다. 지난달 전체 판매는 XM3가 견인했다. XM3는 내수와 수출 시장에서 모두 인기를 얻으며 8월 전체 판매 대수의 53%인 4658대(내수 1114대·수출 3544대)가 판매됐다.

유럽 현지에서만 우수한 품질과 상품성으로 좋은 반응을 얻으며 올해까지 총 2만8712대가 수출됐다. 다만 내수 시장의 경우 반도체 부품 공급 차질 문제로 생산 물량이 고객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며 현재 계약 후 출고 대기 고객은 900명에 달한다. QM6는 지난달 내

수시장에서 3067대가 판매되며 전월 대비 3.8% 감소했지만 6개월 연속 3000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중형 SUV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지엠은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내수 4745대, 수출 1만1871대 등 총 1만 6616대 판매했다. 내수는 전년 동기대비 19.5%, 수출은 45.7% 각각 감소했다. 다만 트레일블레이저와 콜로라도는 내수 시장에서 판매를 견인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2089대 판매되며 전년 동월 대비 17.4% 증가세를 기록했다. 콜로라도는 내수 시장에서 689대가 판매돼 전년 동월 대비 617.7% 증가하며 올해 들어 월 최대 판매를 기록, 두 달 연속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도체 부품 공급 상황이 안정화되기까지 출고 지연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제네시스, 글로벌 프리미엄 입지 강화

美 IQS 프리미엄 브랜드 2위 차지
차급별 평가 G80 1위, GV80 2위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글로벌 시장서 프리미엄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제네시스는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파워의 ‘2021년 신차품질조사(IQS)’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2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35회째를 맞는 제이디파워 신차 품질조사는 1987년 시작된 세계 최고 권위의 품질조사다. 고객이 차량 구입 후 3개월 동안 경험한 품질 불만 사례를 집계해 100대당 불만 건수를 점수로 나타내며, 점수가 낮을수록 품질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올해는 총 32개 브랜드(프리미엄 14개, 일반 18개)의 224개 차종 중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를 대상으로 223개 항목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제네시스는 이번 조사에서 148점을



제네시스 G80.

받아 163점으로 공동 3위에 오른 포르쉐와 링컨을 앞서며 1위 렉서스(144점)의 뒤를 이었다.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 평균(181점)은 물론 일반 브랜드를 포함한 전체 브랜드의 평균(162점)을 웃돌며 전체 브랜드 기준으로는 7위에 올랐다. 기아(147점)와 현대차(149점)는 전체 브랜드 6위와 8위에 각각 올랐다.

제네시스는 처음 평가 대상에 선정된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프리미엄 브랜드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차급별 평가에서는 제네시스 G80이

‘어퍼 미드 프리미엄’ 차급에서 1위로 선정돼 최우수 품질상을 수상했다. GV80은 ‘어퍼 미드 프리미엄 SUV’ 차급에서 2위에 올라 우수 품질상을 받았다.

제이디파워 조사 결과는 미국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 기준으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업체별 품질 경쟁력을 기능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제네시스는 이번 결과가 향후 판매와 이미지 제고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KT, DX원팀 꾸려 ‘전자문서 사업’ 본격 진출

넷케이티아이 등 14개 기업 참여
전자문서 전반 관리 플랫폼 개발

KT가 DX(디지털 전환)원팀을 구성하며 전자문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KT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East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및 전자문서법 개정 환경에 맞춰 전자문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전자문서 전문기업들과 전자문서DX 원팀을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KT는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많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전자문서DX 원팀을 구성했다. 이번 전자문서DX 원팀에는 KT를 비롯해 넷케이티아이, 케이원정보통신, 스테이지5, 플랜아이, 포텝스, 동도시스템 등 총 14개 기업 참여하며, 계속해서 참여기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KT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역량을 살려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 플랫폼은 생성·보관·유통·응용의 전자문서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

며, KT는 이를 전자문서DX 원팀 참여 기업에 제공한다.

또한 참여기업은 이 플랫폼을 활용해 각 기업의 보유 역량과 관심 분야에 대해 고객 최적화 된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추구한다.

전자문서DX 원팀은 연간 생산되는 45억장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이를 달성하면 1296억톤의 탄소배출량을 절감하고, 120ha의 땅에 30년 된 소나무를 심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준혁 기자 junhyuk@

SKT, 스타트업과 ESG경영방안 모색

사회문제 해결 14개 스타트업과
ESG 코리아 얼라이언스 워크숍

SK텔레콤이 사회문제 해결 스타트업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말)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은 ‘ESG 코리아 2021(ESG Korea 2021)’ 얼라이언스 워크숍을 지난 31일 개최해 육성중인 14개 혁신 스타트업들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ESG 경영방안을 모색했다고 1일 밝혔다.

ESG 얼라이언스는 ESG 분야 스타트업들의 도전과 성장을 돋기 위해 국내외 기업, 사회적 기업과 교육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연합체다. SKT와 마이크로소프트, SAP, 소풍벤처스, HGI, 벤처스퀘어, 미클립스, MYSC, SK사회적 기업가센터, SBA 성수 허브, 한양대학교 등 11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ESG 얼라이언스는 지난 6월 ‘ESG 코리아 2021’ 프로그램에 지원한 173개 스타트업 중에서 14개사를 선정하고, 7월 말부터 약 6개월 과정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들이 ESG 목표 설정부터 서비스 개발·시장진입·글로벌 확장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31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워크숍은 스타트업이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기반으로 임팩트 지표와 목표를 수립하는 방안, ESG 경영을 내재화하고 성장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한 특별 강의와 토론·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ESG 코리아 2021’ 프로그램에는 환경·교육·격차·불평등·재난 등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14개 스타트업이 참여하고 있다. /강준혁 기자

LG유플러스 애플 제품 수리비 지원 프로모션

LG유플러스가 U+모바일 고객에게 애플 제품 수리비를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내년 2월 말까지 자사 모바일 이용 고객에게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 등 애플 제품에 대해 수리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보다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리비 지원 범위를 아이폰 이용 고객에서 모든 U+모바일 고객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제품도 기존 3종에 맥을 추가해 총 4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지원 금액은 수리비 1만2000원과 월통신요금 4000원을 지원해 총 1만6000원을 제공한다.

수리비 할인혜택을 받기 원하는 고객

U+모바일 고객이 투바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상담을 받고 있다. /LG유플러스

은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인 ‘투바(TUV A)’에서 U+고객센터 또는 U+멤버십 바코드를 보여주면 된다. 단, 애플 자체 보증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 이용고객과 배터리 교체, 단순 점검 기술비용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준혁 기자

